

2006년 광주비엔날레 작품 <Salon de belle-seour> 벽면텍스트

작품명: This is Donkey

[국문]

당나귀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시는 분은 멕시코 출신의 노동자인 시에라씨 입니다.

이 분은 불법 체류자 이시며 이러한 연기를 대행 해 주는 조건으로 시간당 5000원,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잠시 고용된 이 외국인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분의 성공적인 연기를 위해 만지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십시오.

퍼포먼스 스케줄

2006년 9월 부터

당나귀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실 분

S. 시에라씨

2006년 11월 부터

강아지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실 분

M. 카탈란씨

2006년 12월 부터

고양이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실 분

L. 길릭씨

2007년 1월 부터

수탉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실 분

미정

[ENGLISH TEXT]

This man is Mr. Ciera acts with donkey doll's clothes, Mexican worker.

He works for 8 hours a day, 5000 won an hour for carrying out like this acting also is an illegal sojourner.

Let's have some encouraging applause for him employed for this Gwangju Biennale.
Please don't disturb or touch him for his successful acting.

Schedule of performance

Since Sep. 2006

A man will be an actor with donkey doll's clothes

Mr. S. Ciera

Since Nov. 2006

A man will be an actor with dog doll's clothes

Mr. M. Catalan

Since Dec. 2006

A man will be an actor with cat doll's clothes

Mt. L. Gilic

Since Jan. 2007

A man will be an actor with rooster doll's clothes

Unsettled

작품명: Ich be ein Berliner

[국문]

이 꼬마 어린이는 지금 존 에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3년 서베를린에서 연설한 내용을 한국어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말하는 방식은 60,70년에 한국에서 빈번히 볼 수 있었던 웅변식 연설법이며 초등학교때 부터 배우던 것 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연설 내용에 대해 한국어로 듣는 것도 좋은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이 어린이가 하는 어법과 행동에는 역사와 민족혼이 느껴져 더욱 좋습니다.

이 어린이의 이름은 김초롱이며 현재 광주 두암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살레시오 초등학교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NGLISH TEXT]

This little boy is reappearing in Korean the speech had performed by John. F. Kennedy at West Berlin in 1963.

His style is elocution seen frequently at 60's or 70's in Korea, was taught since elementary school. Though it has a high value to listen to Kennedy's speech in Korean for educational aspect, I was more impressed with his style and action feeling our history and national spirit.

This boy's name is Kim Cho-rong, is 6th year in Gwangju Doo-Am elementary school now.

I express my thanks to the person concerned Salesio elementary school.

작품명: Record-A4p3(floor text)

[국문]

영어를 읽거나 말할 줄 아는 한국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이 이 한글 내용에 대해 물어 본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먼 옛날 한국에는 황금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던 빨간 용, 파란 용, 하얀 용, 검은 용, 분홍 용들이 황금용에게 찾아 와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의 색은 다양 각색이나 자신들이 내 뿜는 불의 색깔이 모두 한결같이 황금 색이니 황금 용이 그들 중 으뜸이라 생각되어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금 용은 기꺼이 수락하여 바로 이곳에서 모두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산 위, 푸르른 하늘 밑에서 새하얀 집을 짓고 시꺼먼 강가에 앉아 벌거 동동한 사과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가 찡찡한 날에는 너무 눈이 부셔서 황금 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황금 용을 집 앞 시꺼먼 강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황금 용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놀라 죽어 버린 황금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 용은 더 이상 황금 색이 아니었습니다.

똥 색으로 변해 버린 그 황금 용을 바라 보며 그들은 더 이상 미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ENGLISH TEXT]

I asked to Koreans can speak English.

Please explain about under contents if foreigners asked it.

Long long years ago, a gold dragon lived in Korea.

Red one, blue one, white one, black one, pink one had lived in the neighborhood visited to him and said.

Their body colors are various but their fire color is the same. The color emitted is gold.

They asked him to rule the world regarding him as a first.

So he accepted it with pleasure and asked them to live here all together.

Eating ruby-red apples, sitting at the side of pitch-black liver, building snowy-white house under turquoise blue sky, they were so happy at the red mountain.

More and more, they couldn't stand it.

They pushed him to the pitch-black liver after all.

Then he was dead reluctantly.

Embarrassed, they pulled him again.

Still, he is not gold anymore.

Looking him had been a gold turned to yellow-brown, they didn't feel sorry anymore.